



| | | | |
|-----------|------------------|-----------|-----------------------|
| 코스피 | 3244.04 (-32.87) | 코스닥 | 1049.83 (-2.15) |
| 금리 (우대대출) | 1.459 (+0.008) | 환율 (원/달러) | 1147.80 (+8.30) (19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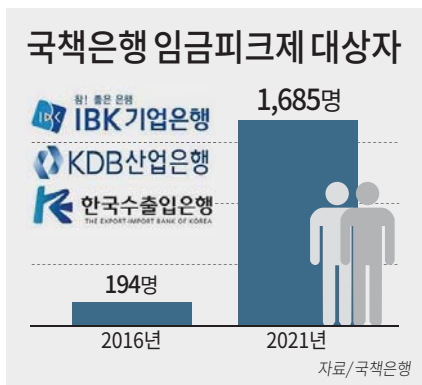
[뉴스]
카드사 뭉쳤다
앱 하나로 카드 연동
오픈페이 시동
02

국책은행 유명무실 ‘명퇴제도’ 임피자 증가로 인사적체 심화

〈임금피크제 대상자〉

産銀·輸銀·기업銀 3대 국책은행
임피제 도입 7년째 희망퇴직 0명
시중은행선 최근 6개월간 2600명

명퇴금 높여 인사적체 해소 요구에
홍남기 “형평성 감안해 신중해야”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를 두고
때아닌 ‘국민정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책은행은 명예퇴직금을 올려 임금피
크 적용 대상을 줄이고 새 일자리를 만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국민정서)
을 내세워 명퇴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
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와 기획재정부는 국책은행의 명예퇴
직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
가고 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도
입된 지난 2015년 이후 7년째 KDB산
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
행 등 3대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자가
‘0명’인 탓이다. 최근 6개월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선 희망퇴직으로 2600명이
집을 썼다.

◆국책은행 명퇴자 7년간 0명

정부가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임금피크제 급여
보다 명퇴금이 적어 명퇴를 택한 인력
이 없어서다.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
인에 따르면 국책은행의 명퇴금은 월

평균 임금의 45%에 남은 퇴직기간의
절반 어치를 곱해서 준다. 사실상 시중
은행 명예퇴직금의 20~30%에 머무는
셈이다.

금융노동조합 관계자는 “명퇴를 하
느니 임금피크제에 들어가 정년까지
버티는 게 당연한 상황이 됐다”며 “고
령자 비중이 매년 늘어나 조직이 급격
히 노후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인력규모는
늘어가는 실정이다. 산업은행과 수출
입은행, IBK기업은행의 올해 임금피
크제 대상자는 1685명으로 지난 2016
년 194명 대비 768.6% 증가했다.

반면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430명
에서 2017년 798명으로 증가한 후
2018년 607명, 2019년 653명, 지난해
469명에 그치며 줄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
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에 손을 떼기 때문

에 사실상 실질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줄
고 있는 상태”라며 “명퇴할 수 있는 명
분을 만들어야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
면서 조직과 직원이 서로 윈-윈(win-
win)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정서는 어디로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민여론과 다
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
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난달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기
존 제도 하에 명예퇴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
다”고 언급했다. 다만 홍 장관은 “이전
에도 획기적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문제
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갑자기 올려줄 수 없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에 진입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
이 오히려 더 국민정서에 반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젊은층의 경우 한
번 채용시장에서 밀려나면 일자리 구하
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데 ‘신의직
장’이라고 불리는 국책은행부터 명퇴
금을 높여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
며 “국민정서를 앞세운 정부가 결과적
으로 누구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화이자 백신 맞는 고3 수험생들

고3 수험생이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 백신접종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맞기 전 예진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동산·주식·가상화폐의 미래 팬데믹 이후 성공 투자 비법은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호지영·윤지호·고란 강연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으로 휘청거렸던 세계경제가 백
신접종 확대에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찾은 세계경제는 이
전의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경제적 성과들은 허물어졌
고, 새로운 환경이 정착됐다. 이제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100세시대를 준비
하는 방법도 변해야 할 시기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오는 20
일 ‘부동산 세테크, 주식·가상화폐의
미래’를 주제로 ‘2021 100세 플러스 포
럼 시즌2’를 웨비나(Webinar) 방식으
로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시
즌2 웨비나는 메트로신문 유튜브채널
을 통해 강연을 접할 수 있다.

시중에는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
산으로 자산이 풀리고 주식과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각자에게 맞는 투자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또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생
활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절세전략
과 미래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시즌2 웨비나에서는 호지영 우
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가
‘부동산 세테크, 증여 Vs 양도’를 주제

로 강연한다. 2주택 이상의 소유자에게
맞는 절세전략이 제시된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급등한 아파트를 2채 이상 보
유하고 있다면 양도보다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답을 내놓는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
터장은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을
강연한다.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리오
프닝 관련 주와 실적장세에 맞는 주를
선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100세 시대에 맞는 전략을 알아본다.

고란 알고란 대표(전 중앙일보 기자)
는 세번째 강연에서 ‘가상화폐의 현재
와 미래’를 제시한다. 블록체인과 가
상화폐의 관계를 통해 현 상황과 가
상화폐,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팬데믹 이후의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향후 재테크는 탐색과 분석,
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접근해 가야
한다”며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시간을 통해 코로나 이후 성공적인 부
의 미래를 그려나갈 기대한다”고 말했
다.

/나유리 기자

메트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오늘 14:00~17:00 웨비나 진행
(유튜브 ‘메트로신문’ 검색)

유한양행, 알레르기 치료 신약 임상1상 승인

오픈 이노베이션 통한 개발 성과
렉라자, 이달부터 보험적용 판매



유한양행 ‘렉라자’

유한양행이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바이오 벤처에서 기술 도입한
신약파이프라인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적극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한
신약개발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유한양행은 19일 만성 두드러기, 아
토피성 피부염, 중증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YH
35324에 대한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YH35324는 유한양행이 지난해 7월

국내 바이오벤처 지아이이노베이션으
로부터 기술 도입한 신약 파이프라인
으로, 양사가 현재 공동 연구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YH35324는 우리 몸 안에서 알레르
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IgE를
억제한다. 특히, 다른 IgE 수용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력을 가지
는 것이 특징이다. YH35324에는 생체

내 반감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적용
돼 효능 지속시간이 우수하며, 기존 Ig
E 항체기반 의약품의 대표적인 부작용
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성도 높였다.

전임상 원숭이 대상 시험 결과, YH
35324는 전세계 연간 매출 4조원의 Ig
E 항체 의약품인 졸레라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IgE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과 경증 알레르기 질환 환자에게
YH35324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약동
학적 특성 및 혈중 IgE 농도 등의 약력
학적 특성을 평가하게 된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준석 “의원 포함 당원들, 캠프 활동
가능… 당직 인사 제외” /사진 뉴시스
▲ 홍준표, 대입 수시 폐지·수능 2회 공
약… 사법고시 부활도

▲ 與,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기로… ‘한
달 이상 늦춘다’
▲ LG엔솔, 중국 CATL제쳤다… 5월 車
배터리 시장 1위



▲ 北 도쿄올림픽 연일 맹폭… 통일부
“과거사·영토문제 비판” /사진 뉴시스
▲ 휴마시스,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베
트남에 230억치 공급